



엔진형식	6기통 수평대향 트윈터보
구동방식	상시 사륜구동
배기량	2981cc
변속기	8단 PDK
최고출력	450마력
최대토크	51.4kg.m
안전최고속도	304km/h
제로백	3.4초
복합연비	8.2km/L

포르쉐 8세대 911 카레라 4S 쿠페는 45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 6기통 수평대향 트윈터보 엔진과 8단 PDK 변속기,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의 조합을 통해 슈퍼카 수준인 제로백 3.4초를 달성했다. 사진제공 | 포르쉐코리아

## '포뮬러 E 챔피언십 서울' 내년으로 연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최가 연기된 'ABB FIA 포뮬러 E 챔피언십: 서울 E-프리'의 첫 대회 일정이 2021년 5월 23일로 결정됐다. 포뮬러 E는 세계 최대의 경주용 포뮬러 전기자동차 레이스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시가지 도로를 활용해 경기를 진행해 왔다. 서울 E-프리는 올해 5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회 관계자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년에 경기를 개최하기로 했다. 포뮬러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대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지만, 내년 5월에 있을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1년형 토요타 GR 수프라 사전계약

토요타코리아의 '2021년형 토요타 GR 수프라'가 사전 계약에 돌입했다. GR 수프라는 3.0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을 장착했으며, 강력한 가속성과 탁월한 핸들링 성능을 발휘하는 토요타의 정통 스포츠카다. 엔진 출력이 더욱 향상된 2021년형 GR 수프라는 20대 한정으로 내년 초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사전계약 후 출고 고객에게는 국내 정상급 레이싱팀 'ATLAS BX 모터 스포츠'와 함께하는 'GR 수프라 레이싱 클래스'에서 레이싱 이론교육과 트랙주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강대환 토요타코리아 상무는 "지난 1월 출시한 2020년형 GR 수프라가 큰 호응과 함께 조기에 판매가 종료되었다.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2021년형 모델을 20대 추가로 준비하게 되었다."며 "향후 시장의 반응에 따라 추가 물량 확보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 스포츠카는 승차감이 별로라고? '911'은 달라!

제로백 3.4초 슈퍼카 수준 성능 최고의 승차감...장거리도 편안 옵션 뺀 기본가격 1억7400만원

포르쉐 911은 포르쉐를 대표하는 스포츠카이자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의 벤치마크 대상이다. 1963년 1세대 모델의 탄생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보적인 성능으로 왕좌의 자리를 지켜왔다. 서울 강남구 포르쉐 청담 스튜디오에서 경기 포천시 소재 '카페 슝'까지 편도 53km 구간에서 8세대로 거듭난 신형 911 카레라 4S 쿠페를 시승했다.

### ●제로백 3.4초...편안한 승차감 인상적

포르쉐 911은 스포츠카의 정점에 서 있는 모델이다. 개구리눈을 연상시키는 동그란 헤드램프와 지면에 밀착되어 있는 다부진 몸매만큼으로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

8세대 911은 전면 차체 폭은 45mm, 후면은 44mm 넓어져 더 단단히 지면을 움켜쥐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휠 사이즈는 전면 20인치, 후면 21인치로 휠 하우스만 보고 있어도 성능이 짐작될 정도다.

성능은 더욱 강렬해졌다. 시승 모델인 911 카레라 4S 쿠페는 6기통 수평대향 트윈터보 엔진과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고출력은 450마력(6500rpm), 최대토크는 54.1kg.m이다. 최대토크가 2300~5000rpm이라는 폭넓은 영역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원하는 순간 폭발적인 가속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시승 코스가 일반 도로와 짧은 구간의 고속도로여서 제한 속도 이상은 밟을 수 없었지만, 순간 가속력과 제동 능력은 많은 이들이 포르쉐를 드림카라고 부르는 이유를 여실히 증명해냈다.

상시 4륜 기능을 갖춘 911 카레라 4S 쿠페 제로백은 3.4초로 슈퍼카 수준이다. 차량의 운동 성능을 담보해 주는 보



내부 디자인

이지 않는 배대는 더 단단해지고 가벼워졌다. 이전 모델까지는 스틸 비중이 63%였지만 8세대 911은 스틸 비중을 30%까지 낮추고 나머지를 알루미늄 합금 등으로 채워 넣었다.

시승 구간이 워낙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의 성능은 테스트해보지 못했다. 다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승차감이다. 테일러카로 써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편안하다. 718 박스터와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하다. 718 박스터가 일상 주행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승차감이라면 911의 승차감은 훨씬 더 편안해, 장거

리 투어러 수준까지 올라섰다. 실내 인테리어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계기판은 중앙에 아날로그 회전 카운터를 두고, 양 옆으로 7인치 TFT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으며, 중앙에는 10.9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배치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지만, 계기판의 아날로그 감성이 그리워지는 것은 개인 취향의 탓만은 아닐 것이다.

첨단 사양도 충실히 갖추고 있다. 자동으로 물을 감지하는 옻트 모드가 기본 탑재되었고, 카메라 기반 전방 경고 및 브레이크 지원 시스템, 파크 어시스트 시스템, 열화상 나이트 비전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등도 기본 적용되었거나 옵션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나 차선 유지 보조 기능 등이 빠져 있는 점은 아쉽다.

911 카레라 4S 쿠페의 기본 가격은 1억7400만 원이며, 시승차 수준의 각종 옵션을 추가하면 2억1800만 원대로 올라간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BMW코리아 '디지털 세일즈 플랫폼' 도입

7월부터...신속 정확한 서비스 기대

BMW 코리아(대표 한상운)가 국내 수입차 브랜드 최초로 전자계약시스템인 '디지털 세일즈 플랫폼'을 도입하고 7월 1일부터

전국 52개 전시장에서 본격 시행한다.

BMW 코리아의 디지털 세일즈 플랫폼은 기존의 서면 기반 서비스 방식을 완전히 대신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이다. 시승이나 계약 등에 필요한 각종 종이서류를 모두 전자

문서로 대체하며 서류 확인이나 서명, 보관 및 전달까지 태블릿, 휴대폰 등의 모바일 기기로 통합 관리해 한층 정확하고 간결한 구매 프로세스를 제공하게 된다. 비대면 계약에도 유용하다. 개인정보동의서나 계약서 등의 전자문서 링크를 고객 휴대폰으로 발송하면 고객은 영업사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내용을 확인, 서명 및 전달

이 가능하다.

전 과정을 전자화해 서면 계약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이나 계약조건 불일치, 서류 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상품자료나 임할일정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전용 태블릿 하나로 모두 확인할 수 있어 한층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원성열 기자

### 건강

## 세계로 가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APEC 전문교육훈련기관 공식 지정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이 아시아태평양양경제협력체(APEC)의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APEC 전문교육훈련기관은 APEC 국가 내 규제당국, 업계 및 학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APEC 규제 조화사업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APEC 규제조화 운영위원회(RHSC)가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

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는 바이오의약품, 약물감시, 의료기기, 다지역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실태조사, 우수등록관리, 의료제품 유통체계, 그리고 첨단치료제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APEC 다지역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실태조사 교육의 성과를 인정받아 관련 분야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승인 받았다.

이번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으로 국가임상시험재단은 임상시험 품질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국내 및 APEC 지역의 규제 당국자들에게 FDA(미국), EMA(유럽) 관련 전문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 교육과 실제 활용 방법 등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APEC 국가들의 규제조화를 선도하고 규제당국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퇴행성 질환 '허리디스크'...원인·증상마다 올바른 치료 중요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현대인들은 잘못된 자세와 운동 부족, 스마트폰·PC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척추·관절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허리디스크와 같은 퇴행성 질환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30대에서도 쉽게 발생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젤리같이 말랑말랑한 수핵과 수핵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되며,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허리디스크는 노화나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 섬유륜이 손상되거나 파열되면서 디스크 내부의 수핵이 빠져나와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해 요통과 다리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원인은 노화, 외부적 충격 및 자극, 섬유륜의 손상 또는 파열, 디스크 내부의 수핵이 빠져나와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

는 것 등 다양하다. 발병하게 되면 허리와 골반의 통증, 다리가 저리고 아픔, 다리의 힘이 줄어들어 다리가 힘이 없고 무겁게 느껴짐, 반대쪽 다리와의 감각 차이 등을 호소하게 된다.

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이 길어지며, 치료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 허리디스크를 계속 방치한다면 대소변 장애나 다리의 힘이 빠지는 등의 마비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허리디스크는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수술 치료로도 충분히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신경성형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풍선 확장술 등의 비수술 치료로 진행된다. 이는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증상이 지속될 때 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시술 시간이 짧고 바로 다음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고령이나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시술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허리디스크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 한자마다 어떠한 시술이 필요한지, 어느 부분의 시술을 요하는지 등의 결정은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을 우선시해야 한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우선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료를 하더라도 언제든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질환인 만큼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해야 한다. 일상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닥에 앉는 자세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하중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므로 되도록 피하고 의자에 앉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자에 앉을 때에는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밀착시키고 허리를 자연스럽게 펴서 앉아야 한다.

김동성 광진구 서울프라임병원 원장(신경외과 전문의)



## 마데카솔 새 CF 모델에 양세형·세찬 형제 선정

동국제약(대표이사 오홍주)은 개그맨 양세형과 양세찬을 모델로 한 식물성분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의 새로운 TV-CF를 완성했다.

이번 CF에서 양세형과 양세찬은 '상처 요정'으로 활약하며, 마데카솔 연고제와 분말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피부에 상처가 난 요정에게 '마데카솔케어연고'를 발라주고, 진물이 나는 요정에게는 '마데카솔분말'을 뿌려준다는 설정이다. 양세형과 양세찬은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말투로 '바르는 마데카솔', '뿌리는 마데카솔'이라는 카피를 통해 '상처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동국제약 담당자는 "이번 광고에서는 상처 요정이 마데카솔을 바르고 뿌리는 모습을 통해 어른 아이할 것 없이 상처에 맞는 적합한 제품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에이지 못한 부상에 대비해 마데카솔케어와 마데카솔분말 등을 필수 가정용 상비약으로 구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